



지난 8일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중국을 비롯한 6개 국 바이어들과 상담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제공

충남 수출상담회 980만달러 계약 성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 본부가 충남도와 공동으로 지난 8일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2억 2900만 달러의 상담 실적과 98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수출상담회에는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에서 추천한 중국·일본·러시아·인도·베트남·대만 등 6개 국 바이어 28명과 식품, 기계, 자동차부품,

섬유화학, 생활용품 등 다양한 업종의 충남지역 100여 개 중소기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상담 결과, 논산 (주)건강마을이 중국 베이징 PINLI 푸드와 5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주)케이티엠, 영신식품 등 34개 업체가 980만 달러 어치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다른 참가업체들도 해외바이어들과 적극적인 상담을 벌여 추후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11.3 X 15.6 cm